

# FTA대응 수출시장 확대전략 1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 1. 농식품 수출 동향

### 1.1. 품목별 동향

- FTA 체결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 중심의 수출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FTA 체결 국가인 미국, 유럽(EU), 아세안 국가 중심으로 수출시장 진출여건을 살펴보고 수출시장 확대전략을 제시한다.
- 2011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76.8억 달러로, 2007년 대비 104.4% 증가하였다. 반면, 농

림수산물 수입액은 331.7억 달러로, 2007년 대비 72.4% 증가하여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그 중 농산물 수출액은 최근 5년간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122.2%), 인삼류, 과실류가 수출을 주도하였다.
- 인삼류는 홍콩, 중국 등의 신흥수출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과실류는 유자차, 과즙음료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버섯류는 미

표 4-1.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감률
농림수산물	3,759.3	4,496.5	4,809.3	5,880.0	7,684.0	104.4
· 농식품	2,531.8	3,048.2	3,298.1	4,081.9	5,383.5	112.6
- 농산물	2,222.5	2,714.7	2,990.8	3,721.7	4,939.2	122.2
- 축산물	181.0	215.1	139.6	146.1	176.4	-2.5
- 임산물	128.3	118.5	167.7	214.1	266.9	108.0
· 수산식품	1,227.5	1,448.3	1,511.2	1,798.2	2,308.4	88.1

주 : 1) 수출액 증감률은 2011/2007임.

2) 2011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자료 잠정치임.

자료 : 농림수산물품부, 2010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2011.3).

국, 유럽, 호주 등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 임산물 수출액도 2007년 대비 배 이상 (108.0%) 증가하였는데 버섯류와 신선밤 등 주력품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1.2. FTA 국가별 동향

### 가. 미국

- 한국 농림수산물식품의 미국시장 수출액은 6.0억 달러로 2007년 대비 49.6% 증가하였다.
  - 그 중 농식품은 38.8%, 수산식품은 82.8% 증가하였으며, 농식품 중에서는 농산물과 임산물이 각각 53.4%, 60.3% 증가하였다.
  - 미국산 농림수산물식품 수입액은 77.0억 달러로 108.3% 증가하여 대미 수출액 및 수출증가율이 수입액 및 수입증가율보다 작다.
- 농식품은 채소류, 버섯류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는데, 채소류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신의 반사영향을 받았고, 버섯류는 팽이버섯 중

심으로 중국산과 캐나다산 대비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임산물 수출은 중국산 표고버섯과 대추를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업체가 늘어 증가하였다.

### 나. 유럽(EU)

- 한국 농림수산물식품의 유럽(EU)시장 수출액은 3.6억 달러로, 2007년 대비 122.5% 증가했다.
  - 농식품 수출액은 379.4%로 크게 증가한 반면, 수산식품 수출액은 8.9% 감소하였다.
  - 농식품 중에서 농산물은 418.4%, 임산물은 87.5%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은 10.5% 감소하였다.
  -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0.0% 증가한 27.7억 달러로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작지만 수출증가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 농식품 중에서 인삼류 수출액은 감소하였으나 김치, 과일류, 버섯류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 과일류는 아시아계 소비자들 중심으로 과즙 음료와 배, 유자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 버섯류는 새송이버섯이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단가

표 4-2. 한국 농림수산물식품의 미국시장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감률
농림수산물식품	400.9	449.2	467.3	518.8	599.9	49.6
· 농식품	302.0	335.4	338.4	376.6	419.2	38.8
- 농산물	257.1	295.0	313.9	348.2	394.3	53.4
- 축산물	38.1	32.4	15.3	15.6	14.0	-63.3
- 임산물	6.8	8.0	9.2	12.8	10.9	60.3
· 수산식품	98.9	113.8	128.9	142.2	180.8	82.8

주 : 1) 수출액 증감률은 2011/2007임.

2) 2011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자료 잠정치임.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2010년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2011. 3).

## | 축산수첩 |

표 4-3. 한국 농림수산식품의 유럽(EU)시장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감률
농림수산식품	162.2	245.6	259.1	332.7	360.9	122.5
· 농식품	54.9	150.1	162.1	204.3	263.2	379.4
- 농산물	49.0	140.3	154.1	196.5	254.0	418.4
- 축산물	1.9	3.7	3.2	2.4	1.7	-10.5
- 임산물	4.0	6.1	4.8	5.4	7.5	87.5
· 수산식품	107.3	95.5	97.0	128.4	97.7	-8.9

주 : 1) 수출액 증감률은 2011/2007임.  
 2) 2011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자료 잠정치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2011.3).

가 상승하고 판로도 확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출액 규모가 수입액 규모보다 적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두 배 이상 높았다.

### 다. 아세안(ASEAN)

- 한국 농림수산식품의 아세안시장 수출액은 아세안(ASEAN)과의 FTA 협정 발효 이후 4년 정도가 지난 2011년에 10.3억 달러로,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 대비 200.2% 증가하였다.
  - 농식품은 254.3%, 수산식품은 111.5% 증가하였고, 농식품 중에서는 임산물, 농산물, 축산물 순으로 각각 627.9%, 254.9%, 82.4%로 크게 증가하였다.
  - 아세안시장에서의 농림수산식품 수입액은 44.5억 달러로 87.2% 증가하였으며, 유럽과

- 아세안시장 농식품 수출은 채소, 김치, 인삼, 과일, 버섯류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 채소류는 싱가포르 시장에 대한 딸기 수출량 증가 등 말레이시아, 태국 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 버섯류도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베트남,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 축산물은 돼지고기 수출이 감소한 반면,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4-4. 한국 농림수산식품의 아세안시장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감률
농림수산식품	343.8	451.3	521.1	719.8	1032.1	200.2
· 농식품	213.6	271.0	325.4	521.6	756.7	254.3
- 농산물	179.9	215.3	268.9	450.1	638.5	254.9
- 축산물	23.3	39.9	38.6	38.2	42.5	82.4
- 임산물	10.4	15.8	17.9	33.3	75.7	627.9
· 수산식품	130.2	180.3	195.7	198.2	275.4	111.5

주 : 1) 수출액 증감률은 2011/2007임.  
 2) 2011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자료 잠정치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2011. 3).

- 신선농산물의 미국시장 주요 수출 품목은 배, 인삼, 단일과실조제품, 채소종자, 팽이버섯, 밤, 새송이버섯 등이다. EU 시장은 채소주스, 새송이버섯, 인삼, 김치, 선인장 등이며, 아세안 시장은 닭고기, 딸기, 인삼, 단감, 팽이버섯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 인삼, 김치 등 기존 수출 주력상품이 부상하고 신규 고부가가치 상품의 등장으로 수출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다.

**라. FTA 국가별 수출비중 변화**

- 농림수산물식품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2011년 현재 아세안(14%), 미국(8%), 유럽(5%) 순으로 높다.

- 아세안은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에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대상국이었는데 현재는 일본, 중국에 이은 제3위의 주력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도 1995년 5%에서 14%로 크게 높아졌다.
- 미국은 2007년까지 3위의 수출시장이었으나 최근 아세안에 추월당해 4위가 되었고, 수출 비중도 2007년 11.0%에서 8.0%로 낮아졌다.
- 유럽(EU) 수출비중은 1995년 5%, 2007년 4.0%, 2011년 5.0%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최근 수출증가세가 높은 편이다.
- 이러한 수출국가별 비중 변화는 기존의 일본 시장 중심의 수출에서 수출시장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5. FTA 국가별 신선농산물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미국		EU		아세안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배	25.4	채소주스	5.1	닭고기	16.8
2	인삼	9.6	새송이버섯	3.7	딸기	14.6
3	단일과실조제품	5.0	인삼	2.8	인삼	10.8
4	채소종자	4.9	김치	1.9	단감	6.5
5	팽이버섯	4.0	선인장	1.5	팽이버섯	4.5
6	밤	3.4	채소종자	1.4	오리고기	2.9
7	새송이버섯	2.9	단일과실조제품	1.0	단일과실조제품	2.3
8	고추	2.7	팽이버섯	0.3	배	1.7
9	김치	2.7	고추	0.2	사과	1.6
10	무	1.5	배	0.2	채소종자	1.5

주 : 수출품목 순위는 2010년 국가별 수출금액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2010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2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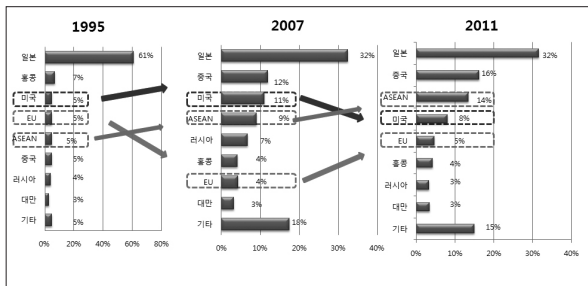


그림 4-1. 한국 농림수산물 수출 비중 변화

주 : 2011년 수출비중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 잠정치에 기준  
 함(2012.1).  
 자료 : aT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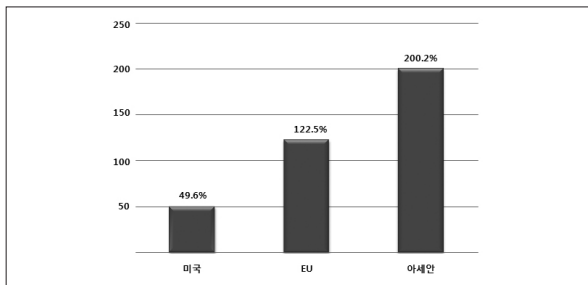


그림 4-2. 한국 농림수산물 수출시장 수출 증가율

주 : 1) 수출액 증감률은 2011/2007년.  
 2) 2011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자료 잠  
 정치임.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10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2011.3).

## 2. FTA 체결국 수입여건 분석

### 2.1. 수출영향 요인별 여건

- 국내산 신선농산물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① 수출시장 규모 및 소비자의 구매력, ② 우리나라로부터의 거리 및 수송비용, ③ 상대환율, ④ 한국인 체류자 수, ⑤ 한류문화 콘텐츠 수출액, ⑥ 관세 수준, ⑦ 비관세 장벽 등을 들 수 있다.
  - 해외시장 규모가 클수록, 수송거리가 짧아 운

송비용이 적은 시장일수록, 한국인 체류자수가 많을수록 수출에 유리하다.

-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기반 조성사업,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등도 신선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 FTA 국가별 시장규모 및 소비자의 구매력 수준에서 미국은 인구 3억 700만 명, GDP 14조 1,190억 달러의 세계 최대 시장이다.

- EU는 27개 회원국을 보유하는 5억 100만 명의 인구와, 16조 3,700억 달러의 경제규모 (GDP)를 가져 단일 경제권으로는 세계 최대이다. 1인당 GDP는 3만 650달러로 미국의 65% 수준이며, 1인당 구매력이 매우 낮은 신규 회원국들이 포함되면서 역내 경제력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6억의 인구와 1조 800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 중의 하나이다. 최근 ASEAN 회원국들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1인당 소득 및 구매력 증가로 인해 아세안은 일본,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 FTA 국가별 수송비용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거리가 가장 멀고, 자국내 물류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송에 따라 신선 농산물 품질유지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해상운송일 경우 미국 서부지역인 로스앤젤레스까지 10일, 동부 지역인 뉴욕까지는 24일이 소요된다.
  - 유럽도 직선거리는 미국보다 가깝지만 (8,991km 파리 기준) 해상운송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농식품 수출에서 신선농산물 비중이 미국이나 아세안에 비

해 낮다.

- ASEAN은 미국과 EU에 비해 절반 이상 가깝기 때문에 운송비용이 저렴한 만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유리하다.

■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의 주 수요층인 한국인은 218만 명이다. EU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11만 7천 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농산물에 대한 소비층은 얇은 편이다. 반면, 아세안은 한국인 체류자 수가 EU의 두 배 이상인 27만 2천 명이다.

■ 상대환율(원화의 대미환율/수입국 통화의 대미환율)과 관세인하도 해외시장에서 수출농산물의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 상대환율의 영향은 품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과실류의 경우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거나 수출상대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 반면, 수출단가가 높은 인삼류의 수출은 환율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수출대상국의 농산물 수입관세는 지난 10여 년간 변동이 크지 않아서 수출농산물 가격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 하지만, 향후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는 수출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시장에서 한류의 확산 정도도 우리 농산물의 수출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동남아시아는 최근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인기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한류의 확산과 함께 농산물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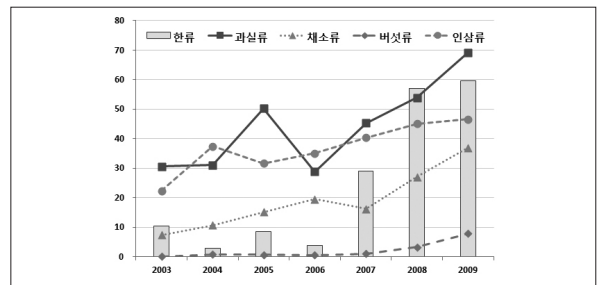


그림 4-3.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품목별 수출액과 한류의 확산 추이

표 4-6. FTA 체결국의 수출시장 여건(2010년 기준)

구분	미국	EU	아세안
인구(명)	3억 700만	5억 100만	6억
GDP(달러)	14조 1,190억	16조 3,700억	1조 800억
1인당 GDP(달러)	47,000	30,650	2,600
한국과의 거리(km)	11,156	8,991	4,350
한국인 체류자 수(명)	218만	11만 7천	27만 2천
문화컨텐츠 수출액(달러)	9,580만	2,030만	1억 5,860만

자료: 통계청, 무역협회.

## 2.2. 국가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2.2.1. 미국

#### 가. 관세

- 미국의 농산물 수입관세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혼합되어 있으며,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11.1%로 농업부문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편이다.
- 미국측 양허안은 대부분의 농산물이 FTA 발

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되지만, 버섯류 등은 협정 발효 후 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 현행 종가세율이 높았던 품목 중에서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품목은 김치, 백합, 장미 등이며, 종량세가 높은 품목들 중에서는 유자차, 팽이버섯 등이다.

#### 나. 검역 및 통관

- 우리나라가 미국시장 수출을 목표로 검역협상

표 4-7. 미국시장 주요 수출품목의 미국측 양허내용

단위 : %

품 목	구 분	기준세율(수입기간)	양허세율
감귤	신선	1c/kg	0
고추	신선, 냉장	4.4c/kg	0
김치	조제저장처리	11.2%	0
단감	신선	2.2%	0
딸기	신선	0.5 ~ 1.1c/kg	0
막걸리	곡물발효주	3c/lt	0
무	신선	2.7%	0
밤	탈각/미탈각	0	0
배	신선	0.3c(7.1~3.31) 0(4.1~6.30)	0
사과	신선	0	0
새송이버섯	신선/냉장	8.8c/kg+20%	5년 철폐
유자차	조제	11.3c/kg	0
인삼	홍삼, 백삼	0	0
선인장	-	1.9% ~ 6.8%	0
백합	절화/신선	6.4%	0
장미	절화	6.8%	0
채소종자	기타	1.5c/kg	0
파프리카	신선	4.7c/kg	0
팽이버섯	신선/냉장	8.8c/kg+20%	0

주 : 1) 미측양허에서 0은 관세 즉시철폐를, 나머지 숫자는 해당기간 동안 관세 균등철폐를 의미함.

2) c는 센트를, lt는 리터를 의미함.

자료 : 무역협회, 한미 FTA 양허표.

(미국 측의 한국산 수출농산물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을 추진한 농산물 중에서 최근에 수입이 허용된 품목은 감귤, 토마토, 냉이, 미니화분 등이다.

- 국내산 후지사과는 1990년에 미국으로 수입 허용을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수입위험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 수입위험평가는 양국간 자료교환과 현지조사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 평가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양국간 검역협상에서 관례적으로 각국은 상대국 수입위험평가의 진전에 따라 자국에서의 수입위험평가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경향이 있다.
-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는 국가별,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양국간 수입허용 요청에서부터 수입허가 결정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 미국 시장으로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

다로운 통관절차와 샘플 검사 등을 거쳐야 하는 탓에 많은 준비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 샘플 검사가 필요한 농림수산물(식품의약국(FDA)이 샘플조사를 하는데 조사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되는 즉시 수입이 허가된다.
- 미국은 거의 모든 수입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원산지표시 규정은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집행하고 있다. 가공농산물은 일반 상품과 같은 원산지 표기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선 농산물은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 식품표시사항(Label Statements)은 FDA에서 관리·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미국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가정에 배달하는 음식 등을 뺀 대부분의 식품에 새 영양분석표(New Nutrition Label)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표 4-8. 대미국 수입허용요청 품목의 수입위험평가 진행상황

국가	요청품목	요청연도	협상 진행상황
미국	토마토	1999	• 수입 허용( '11.10)
	뿌리달린 냉이	2000	• 수입 허용( '11.7)
	미니화분 26종(묘·분화)	2006	• 수입 허용( '11.4)
	감귤(본토)	2008	• 미국 본토 수입 전면 허용( '10.10) - 한라봉, 천혜향 수입허용 요청( '11.1)
	후지사과	1990	• 일반 사과는 미국 측이 입법예고( '00)시 수렴된 의견에 대해 새로운 PRA 실시 중( '07) - 소독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사과는 수출 가능
	고구마	2000	• 미국 측이 PRA 추가자료 요청( '08.4)
	호접란(묘·분화)	2004	• 미국 측에 PRA 검토 촉구( '07.4) - 육묘 상태, 란 자체만으로는 수출이 가능함 - 수태 등을 포함하는 화분유형은 PRA 진행중
	심비디움		
	브로콜리	2009	• 수출허용 요청( '09.2)

주 : 1) PRA는 Pest Risk Analysis의 약자이며, 개별병해충위험평가를 의미함.  
 2) 수입허용절차는 접수(1), 착수(2), 예비위험평가(3), 개별병해충평가(4), 관리방안(5), 요건초안작성(6), 입안예고(7), 수입허용(8) 단계를 거침.



## 2.2.2. 유럽(EU)

### 가. 관세

- EU 농산물 수입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22.2%로 미국보다 높으며, 종량세와 종가세가 혼합되어 있다.
- EU는 한·EU FTA의 발효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 농산물 중에서 감귤(만다린류), 사과와 배(신선)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 감귤과 사과(신선)는 이행 5년차에 관세가 철폐된다.

- 한국산 배(신선)는 계절관세가 적용되는데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행 7.2%(또는 0.36유로/100kg)의 관세가 5단계에 걸쳐 철폐되며, 나머지 기간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 FTA 발효 이전에 기준세율이 10% 이상으로 높았으나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수출에 유리해진 품목은 김치, 딸기, 무, 유자차 등이다.

### 나. 검역 및 통관

- EU는 미국과 달리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조

표 4-9. EU시장 주요 수출품목의 EU측 양허내용

단위: %

품 목	구 분	기준세율	양허세율
감귤	신선	16%	5년
고추	신선, 냉장	0	0
김치	조제저장처리	17.6%	0
단감	신선	8.8%	0
딸기	신선	11.2%	0
막걸리	곡물발효주	€5.76/hl	0
무	신선	13.6%	0
밤	탈각/미탈각	5.6%	0
배	신선	7.2%	5(8.1-12.31) 0(1.1 ~ 7.31)
사과	신선	7.2%	5%
새송이버섯	신선/냉장	6.4%	0
유자차	조제	18.4%	0
인삼	홍삼, 백삼	0	0
선인장	-	8.3%	0
백합	절화/신선	8.5%	0
장미	절화	8.5%	0
채소종자	기타	3%	0
파프리카	신선	7.2%	0
팽이버섯	신선/냉장	6.4%	0

주: 1) EU측 양허에서 0은 관세 즉시철폐를, 나머지 숫자는 해당기간 동안 관세균등철폐를 의미함.

2) 감귤 만다린류의 종가세는 5년간 16% 균등 철폐되며, 감귤, 사과, 복숭아 등의 유사품목 종량세는 수입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행 15년차에 일시 철폐됨.

3) h은 헤토리터임.

자료 : 무역협회, 한미 FTA 양허표

치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편이다. 현재 EU를 상대로 검역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 농산물은 없는 상태이다.

- EU는 수입금지조치를 우선 적용하고 위험평가를 통해 이를 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입허용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입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출업체나 농업인들도 유럽 수출을 위한 별도의 검역협상을 우리 검역당국에게 요청하지 않고 있다.

- 이미 감귤, 배, 사과, 밤 등을 러시아 연방,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지로 수출하고 있으며, 채소류는 팥이버섯, 딸기, 고추, 토마토, 호박 등을 수출하고 있다.

■ EU의 농식품 수입통관절차는 일반 상품보다 다소 까다롭게 적용되는데, 소비자의 건강, 전염병 등 농수산물, 식품 수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 EU 회원국들의 농식품 수출입제도는 관세, 통관, 검역, 수입규제제도로 구분되며, WTO 및 EU 규정 범주 내에서 운영된다.

- 육류 등의 검역은 EU 동물검역제도 (Veterinary Checks)에 따라 사전 검역과정을 거쳐야 하며, 식물의 경우 검역인증서 (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과 어류는 위생인증서 (Health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한다.

### 2.2.3. 아세안

#### 가. 관세

■ 한·ASEAN FTA의 상품 양허안은 전체품목을 크게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군과 초민감품목군

으로, 초민감품목군은 다시 5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 일반품목군에 속하는 품목의 관세는 한국과 ASEAN 선발 가맹국인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2010년에 완전히 철폐되었다.

- 후발가맹국인 베트남의 경우 2016년까지,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8년까지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철폐를 완료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경우 선발 가맹국인 6개 국가의 수입관세는 대부분 2012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베트남 등 후발 가맹국은 2012년 이후에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 5~50%의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한 10% 이상의 기준세율이 완전 철폐되어 수출확대에 유리해진 품목은 고추, 무, 새송이버섯, 팥이버섯, 딸기, 파프리카, 백합, 장미 등이다.

#### 나. 검역 및 통관

■ 우리나라 정부는 아세안 지역으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에 대해 수입허용요청을 해놓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열대과일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 수입허용요청 품목 중 필리핀으로 감귤 수출이 허용되고 파프리카는 5단계 진행중이다.

- 베트남의 토마토 수입도 5단계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개별 품목에 대한 수입허용을 결정하는데 소

## | 축산수첩 |

요되는 기간은 양국의 정책적 또는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단축될 수도 있다.

사 등의 통관행정이 불투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적인 조치와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 ■ 아세안 국가들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검

표 4-10. ASEAN 시장 주요 수출품목의 아세안측 양허내용

단위 : %

품 목	구 분	기준세율	양허 세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감귤	신선	10	0	0
고추	신선, 냉장	20	0	0
김치	조제저장처리	10	0	0
단감	신선	10	0	0
딸기	신선	15	0	0
막걸리	곡물발효주	5	양허 제외	양허 제외
무	신선	20	0	0
밤	탈각/미탈각	3	0	0
배	신선	7	0	0
사과	신선	7	0	0
새송이버섯	신선/냉장	10	0	0
유자차	조제	10	0	0
인삼	홍삼, 백삼	3	0	0
선인장	-	3	0	0
백합	절화/신선	15	0	0
장미	절화	15	0	0
채소종자	기타	1	0	0
파프리카	신선	20	0	0
팽이버섯	신선/냉장	10	0	0

자료 : 무역협회, 한·ASEAN FTA 양허표.



표 4-11. 대아세안 수입허용요청 품목의 수입위험평가 진행상황

국가	요청품목	요청 연도	수입위험평가 진행상황
베트남	토마토	2008	• 수입허용절차의 5단계 진행중
	감귤, 복숭아, 단감, 멜론, 딸기, 파프리카	2008	• 수출허용 요청 및 품목별 병해충 목록 제공( '08.8) - PRA 완료시까지 현행대로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하여 수출가능
태국	감(단감), 배, 사과, 포도, 멜론, 참외, 복숭아, 감귤, 딸기, 채소종자 (고추·토마토·가지)	2007	• 수출허용 요청( '07.8) - 품목별 PRA 자료 제공( '08.1) - PRA 완료시까지 현행대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 가능
	파프리카, 토마토	2007	• 수출허용 요청 및 PRA 자료제공( '07.12)
필리핀	감귤(만다린류)	2002	• 수입 허용( '11.9)
	파프리카	2007	• 수입허용절차의 4단계 진행중
	멜론(참외 포함), 포도, 토마토	2007	• 수출허용 요청( '07.12) - 병해충목록 및 생산관련 자료 제공
	딸기	2008	• 수출허용 요청( '08.10) - 병해충목록 및 생산관련 자료 제공
	브로콜리	2010	• 수출허용 요청( '10.5) - 병해충목록 제공

주 : 수입허용절차는 접수(1), 착수(2), 예비위험평가(3), 개별병해충평가(4), 관리방안(5), 요건초안작성(6), 입안예고(7), 수입허용(8) 단계를 거침

※ 다음호에 이어

